



“학교밖 체육사 유리창 솜하게 켜죠”

스포츠 **포커스**

‘빅초이’ 최희섭 야구 입문에서 KIA 입단까지



최희섭이 광주제일고 2학년이던 지난 96년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 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활약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제발 우리 집 유리창 좀 깨줘!”
광주제일고(이하 광주일고) 정문 도로 건너편에서 20년째 ‘우리체육사’를 운영해 온 주인 이천호(55)씨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광주일고 야구부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종권(53)씨는 “우리체육사에만 가면 제발 유리창을 깨도 좋으니 (최)희섭이 처럼 강한 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당시 희섭이의 파워가 너무 강해 타격 훈련도중 140m 넘게 떨어진 체육사의 유리창을 종종 깨곤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좀 살살 치라고 해도 타구가 학교 담장을 자주 넘어가는 바람에 희섭이는 알루미늄 배트 대신 공이 덜 날아가는 나무배트로 타격 연습을 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희섭도 “처음에는 나도 깜짝 놀랐다. 그 후로 주변에선 제발 좀 천천히 하라고 말할 정도였다(웃음).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면서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사고를 친 기억이 남아있다”며 즐거웠던 고교 시절을 떠올렸다.

소년장사·단거리선수 활약하다 ‘거포’ 성장

광주일고에선 전설처럼 전해오는 ‘거포’ 최희섭의 고교시절 이야기다.
최희섭은 원래 씨름 선수였다고 한다. 전남 영암이 고향인 최희섭은 초등학교 시절 ‘소년장사’로 이름을 날렸다. 덩치는 또래 아이들 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지만, 한때는 단거리 육상선수로 쉴 정도로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씨름보다는 당시 유행하던 야구에 관심이 많았다. 결국 함께 살던 외삼촌을 졸라들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90년 선동렬 현 삼성 감독의 모교인 승정동초교로 전학을 오게 된다.

그리곤 야구 시작 1년 만에 주전투수와 4번 타자로 전국대회 우승의 주역이 됐다.
최희섭은 6학년 때인 1991년 동기인 이현곤(현 KIA)과 1년 후배인 정상훈(현 현대) 등과 함께 전국초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최희섭은 이 대회에서 홈런 5개로 홈런왕에 오르며 거포 본능을 일찌감치 드러냈다.
박대범 승정동초교 야구부 감독(현 화정초교 감독)은 “처음 봤을 때 일단 큰 덩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달리기도 잘하고 송구력도 좋아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총장중 진학 후에도 중학야구전국대회 타격왕에 오르는 등 거포의 자질을 키워낸 최희섭은 광주일고 진학 후 그 기량이 꽃을 피운다.
최희섭은 고교 1학년 시절엔 시속 140km를 던져내는 강속구 투수였고, 고교 2학년

고교시절 ‘무등기대회’ 우승 못한게 큰 아쉬움

때인 1996년엔 ‘파워히터’로 이름을 날리며 1년 선배 김병현(28·콜로라도), 2년 선배 서재응(30·탬파베이)과 함께 제 50회 청룡기 우승을 거두었다. 이듬해엔 전국체전 우승에 이어 대통령배에서 홈런왕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고향이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열리는 유일한 전국대회인 ‘무등기’와는 인연이 없었다.
최희섭은 “우리 지역에 타 팀을 초청한 경기라서 그런지 꼭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대회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교시절 최희섭의 이 같은 거포자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1997년 봄, 당시 김응룡 해태 감독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흘러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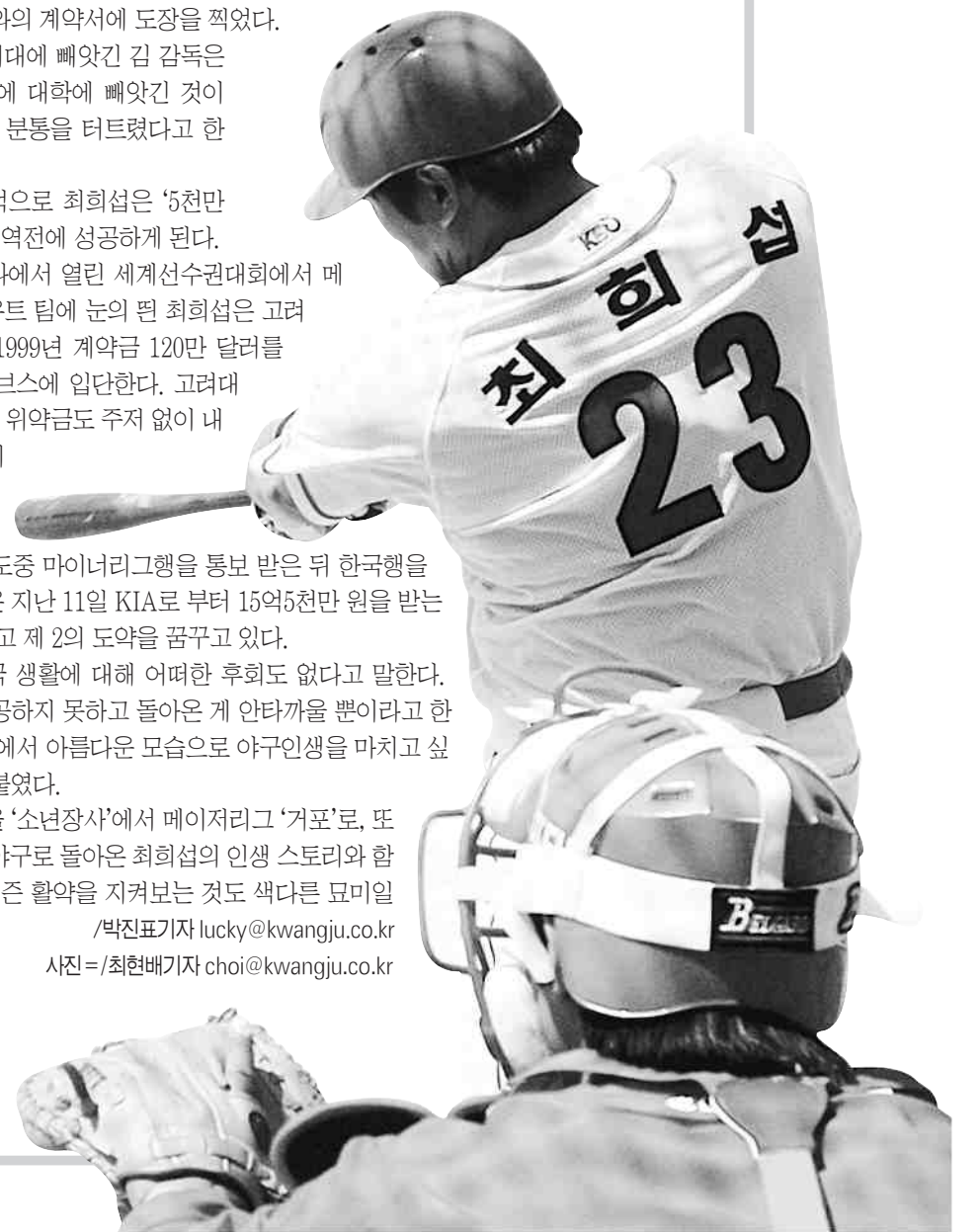
하지만 키 196cm에 몸무게는 100kg이 넘는다는 말을 들은 “그런 녀석을 어디다 쓰겠냐”고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주변에선 덩치는 크지만 발이 빠르다는 말로 김 감독을 설득했고, 직접 지역 고등학교 예선전에서 그를 본 김 감독은 한눈에 반하게 된다.
최희섭의 가능성을 알아본 김 감독은 구단에 “무조건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해태구단도 최희섭이 고교 3학년이던 1997년 우선지명선수로 낙점된 뒤 스카우트전에 뛰어 들었지만, 자금이 문제가 됐다.

김응룡 감독 “5,000만원 때문에 대학에 빼앗겼다”

해태는 당시 고졸선수 계약금 상한액인 3억 원을 제시했지만, 최희섭측이 3억5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엔 모기업이 부도로 화의상태에 있던 터라 3억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때 고려대가 최희섭에게 1억 원의 장학금과 ‘3년 후에 월할 경우 언제든 미국에 보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우트전에 가세했고, 최희섭은 주저 없이 고려대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최희섭을 고려대에 빼앗긴 김 감독은 “5천만 원 때문에 대학에 빼앗긴 것이 많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희섭은 ‘5천만 원’ 때문에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된다.
1997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이저리거 스카우트 팀에 눈이 쏠린 최희섭은 고려대 2학년 때인 1999년 계약금 120만 달러를 받고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다. 고려대에 3억원의 계약 위약금도 주저 없이 내 줬다. 메이저리거 그 6년째인 2007년 3월 23일 스프링캠프 도중 마이네리그램을 통보 받은 뒤 한국행을 선택한 최희섭은 지난 11일 KIA로부터 15억5천만 원을 받는 ‘대박’을 터트리고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희섭은 미국 생활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없다고 말한다. 다만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한다. 그리곤 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구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영양 시골마을 ‘소년장사’에서 메이저리거 ‘거포’로, 또 다시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온 최희섭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그의 2007 시즌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일 듯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 =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방망이: 930g
- 몸무게: 106kg
- 키: 196cm
- 100m 달리기: 12초

- 생년월일: 1979년 3월 16일 전남 영암
- 학력: 승정동초등학교 - 광주중학교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2학년 중퇴
- 수비: 1루수(좌투좌타)

프로필	주요경력
출생 1979년 3월 16일 전남 영암	1997년 대통령배 고교 야구 최다홈런상
학력 승정동초등학교 - 광주중학교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2학년 중퇴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수비 1루수(좌투좌타)	1999년 고려대 재학시절 시카고 컵스 입단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티저)
▶ 메이저리그 5년간 통산성적	2002년 9월 4일 메이저리거 데뷔
363게임 출장, 타율 0.240(915타수 200안타), 40홈런, 120타점	2006년 WBC 한국대표팀 1루수
	2007년 KIA타이거즈 입단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h2 style="margin: 0;">개업·성업 안내</h2> <p style="margin: 0;">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시편부(062)222-8111</p>		광주사랑어머니회 백운동 국제호텔 맞은편 한부도 재활교육지원 기성지원센터 대표 김기순 ☎(062)673-8296	장 강 진월동 광주대정문앞 삼선팜방, 콩물구수, 곰탕, 냉면, 김치찌개 대표 김명선 ☎(062)675-1536	광주일보나주지사(영산포) 남지직영팀 아르바이트모집 ☎(061)332-7764 011-625-6665	최고루 문홍점 문홍동 롯데캐슬아파트내 석인동출입관리 광주의 대표주자!! 최고루 자랑하는 최고루 ☎(062)263-1118~6	해물나라식당 유동 삼성명원음식점 각종해물무침, 갈매기, 찜, 찜, 찜, 찜, 찜, 찜 누적수제비, 동동주, 해물파전 ☎(062)524-7949	간 풍 기 두암동 대주빌라정문앞 30년 노하우의 진수를 맛보십시오. 쿠키, 케이크, 모시, 케이크를 배부르드립니다. ☎(062)252-3363
		광주근로자대기소 동림동 동천마을 주공1단지대문앞 철거, 리모델링, 개보수 일일근로자 수시모집 ☎(062)434-8204	이바담봉선점 봉선동 포스코@입구 대한민국 대표 가족식 브랜드 점장 최한주 ☎(062)676-4499	솔 플 라 위 농성동 농성성당입구 남새잡는 곳, 공기정화 새차중추진, 새집중추진 공기정화 음이온발생 ☎(062)369-0939	고려인삼 진산점 중흥동 안보회사거리 전대초등학교앞 WWW.KOINTEC.ORG 건강유지, 체력보강을 필요로 하시는분 ☎(062)521-3600	항 아 리 힘 집 우산동 서백사거리(구) 국민은행앞 아구찜, 우렁강, 갈매기, 오리, 닭, 갈매기, 새끼치 대표 이영자 ☎(010)9220-8805	금 강 정 사 우산동 말바우시장 나이스미트골목 영사주, 병, 건강, 닭, 닭, 닭, 닭, 닭, 닭 영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십시오! ☎(010)6797-4542
하늘마음순천수련원 순천시 정천동 공전체육센터내 3층 매일첫째목요일 저녁 7시 30분 무료강좌 일반인, 기업, 단체, 대학원생, 청소년대상 ☎(061)741-3132	운림골농원 중심사우라길에서 라인@3차위 낙지전문점 대표 김홍대 ☎(062)222-5778	사 랑 채 매곡동 빅마트맞은편 추어탕, 보신탄전문 각종모임, 단체예약 환영 ☎(062)573-2229	아오자이베트남국제결혼(주) 불로동 불로다리앞 3층 초혼, 재혼, 농촌총각 베트남결혼, 국제결혼상담 전문업체 ☎(062)232-8966	용봉동 송림 용봉동 현대3차@후문 진흥시우내역 한우전문점 ☎(062)528-6633	옛날장터국밥 금남동 황금나이트클럽앞 돼지머리국밥, 따로국밥, 순대국밥 대표 최순덕 ☎(062)228-0600	심 청 축 산 중흥동 말바우시장과 동부시점 건너 수입식고기전문점 (미국, 스페인, 돼지고기) 대표 문희자 ☎(010)9843-0207	미 판 디 자 인 궁동 예술거리 종양초교사거리 액자제작 전문 대표 김동현 ☎(062)228-8500
정희이용원 영광군.읍 도동리 영광천주교앞 구내 무전거리 신장개업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1)353-8894	낙 지 생 각 학동 배고파다리 일방도로가는길 낙지전문점 대표 윤혜송 ☎(062)233-5756	바다봉장어숯불구이 일곡동 광주은행위 신협앞 소금양념, 초훈,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대표 정은영 ☎(062)575-3014	한백년결혼상담소 북동 천주교건너편 국제결혼, 초혼, 재혼, 양념, 양념, 양념, 양념 대표 송희준 ☎(062)527-6672	은혜간병소개소 학동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 간병인, 요양보호사, 하산, 하산 가정에서도 간병해 드립니다!! ☎(062)236-1050	주미네빈대떡과홍어 두암동 두암터널 DC미트점건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대표 박주미 ☎(017)615-5423	부영통닭과편집만두 용산동 소재역앞 편집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2,500원 후라이드+편집만두(4개)+콜라=1천원, 후라이드 1천원 ☎(062)233-5154	석돈비엔날레음점 운암동 중앙여고앞로 광주은행365건너편 고품격 돼지고기전문점 대표 김기영 ☎(062)433-3692
길명우렁쌈밥 영광군.읍 도동리 시장동 우렁쌈밥, 장어구이, 김치찌개, 생태탕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1)353-0064	공민중개사부동산1번지 대인동 반도상가사거리 2~3층 부동산 모든 것 상담 환영 주택, apt, 토지, 건물, 전세, 월세 ☎(062)227-0261~2	서울정형외과 오치동 북부경찰서와 미래이동병원사이 의료급여 의료보험, 신세보험, 자동차보험 지정병원 원장 백대규 ☎(062)433-3300	장 어 나 라 화정동 화정사거리 시민공원앞 장어구이, 매기탕전문점 대표 송희준 ☎(062)382-0990	큰 집 떡 배 기 봉선동 남부문화예술회관 우리농산물로 직접담근 육은지삼겹살 속시원한 콩나물해장국, 전주비빔밥 60전통 ☎(062)673-2292	청 해 진 쌍촌동 상무시장 KT점문앞 낙지, 우렁 전문점 대표 김미례 ☎(062)384-8992	약산암(어이지점술원) 지산동 법원사거리에서 동정다리방향 시주, 관상, 태극, 묘점, 병점 보살구희자 ☎(062)222-7169	두 레 박 학동 정도리자점 낙지,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대표 문영자 ☎(062)234-4799